

유럽 단일시장의 문 두드린다

유럽통합의 기본이해 다룬 책 늘어... 경제적 관점에서 기술

99년 유럽의 경제통합을 앞두고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의 추진과 아시아·유럽 정상회담(ASEM)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가 출판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 출간된 유럽 관련서들은 경제통합에 따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유럽시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을 이루는 인구는 3억7천만 명, 이는 우리나라 국제교역의 중심이 되어 온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많은 수다. 99년 유럽에서 단일통화가 시행된다는 발표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연합은 최대 경제블록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실한 편. 그동안 유럽 멀티미디어 정책, 농정연구, 형사사법공조제도, 환경법제 등 서유럽 선진국의 부분 사례를 연구한 성과나 단편적인 논문들은 나왔지만 EU를 하나의 단위로 접근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럽통합 전개과정 다뤄

이번에 나온 책들은 유럽시장에 접근하기 전에 유럽통합과 유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고, 2차대전 후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전개과정을 주로 다루었다. 이중 광 교수(계명대)가 쓴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일신사)은 유럽통합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시작으로 한 유럽통합의 50년 역사를 사실 위주로 기록함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종합했다.



유럽 경제통합을 앞두고 관련서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사진제공 대우홍보실).

책을 기획한 일신사의 윤백규 편집부장은 “유럽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마땅한 책이 없었던 지 교재로도 채택되는 등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읽히고 있다”고 말한다. 《유럽통합...》이 연표에 가깝게 정확한 사실들을 기술하고 유럽연합의 행정제도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면 《유럽통일》(서병철, 평민사)은 새로 유럽시장에 편입한 중·동유럽의 개혁과 유럽의 안보문제, 유럽통합이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덧붙여 놓았다. 특히 각 장마다 한국의 대응방안을 붙여 놓은 것은 유럽통합이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서 보듯 전방위적인 협력관계가 요즘의 외교 방향이다. 특

히 한·유럽간의 기본협력 서명, 2000년 ASEM 서울개최 등 유럽과 아시아간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모색되는 상황이기에 이런 책들이 출간된다》개론적인 유럽관련서에 대해 한동만 사무관(37, 외무부 외교정책실)의 분석이다.

앞에 언급한 책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영국, 그 나라를 알고 싶다》(서문당)를 출간한 의도도 OECD 가입후 유럽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설명. 유럽을 제대로 알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국 체류기간 동안 영국의 정치·경제·사회제도 등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인용했고 주관적 감상은 전혀 넣지 않았다.

유럽시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재를 다룬 책이 주종을 이룬다면, 《변모하는 유럽은행과 단일금융시장》(민승화, 문원)은 곧 도래할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연구서다. 유럽경제 통합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핵심부문인 금융 및 통화시장을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다년간 유럽 금융기관을 직접 체험하며 각국의 상이한 금융제도, 조직 및 관행을 통합해 온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다가온 단일 통화에 따른 유럽은행의 변모양상과 그 방향도 설명했다.

단일통화에 따른 변모양상

“유럽공동체는 세계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 뿐 아니라 무역, 산업 등 부문별 연구성과가 출판되어야 할 것”이라는 민승화(41, 조흥은행)씨의 말이다. 일신사는 중요성이 커지는 유럽의 경제·문화·정치·행정 등 유럽총서를 낼 생각이고, 문원 역시 독일 노동조합 연구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들 출판사는 유학 대상 지역이 미국 편중에서 유럽으로 넓어진지 10여년째라서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것도 유럽관련서 출간의 외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어쨌든 유럽통합의 열차는 떠났고, 경제통합이라는 도착지가 멀지 않았다. 유럽연합 연구자들은, 경제블록으로서의 유럽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한 타협정신은 우리 분단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인다. —이현주 기자

고쳐하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학 강의

정인화 지음/320면/10,000원/윤리학 입문서

윤리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윤리학 입문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윤리 주제인 혼전 순결, 혼외 정사, 성희롱,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녹색 윤리 등의 문제를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전체 지식론의 기초

J.G. 피히테 지음/한자경 옮김/304면/12,000원/양장

독일 관념론의 장을 연 철학자로 평가되는 피히테의 원전. “지식론”으로 대변되는 피히테의 철학 체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책으로 칸트와 헤겔의 교량 역할을 하는 피히테의 사상이 심도 있게 전개된다.

대안적 삶의 형식

A. 바루치 지음/양우석 옮김/224면/7,500원

“인간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가작성(可작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 두라”는 메시지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관조, 실천, 무위(無爲)라는 대안적 삶의 형식을 제시한다.

데리다: 데리다 철학의 개론적 이해

H. 키멜레 지음/박상선 옮김/176면/6,000원

“데리다에 의한 연구와 데리다에 관한 연구들의 교차”에 대해 다루고 있는 데리다 사상 입문서. 철학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데리다의 기본 사상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